

훈련 열기로 추위 녹이는 '야구 전훈 성지' 동성고



내달 1일 스프링캠프에 앞서 동성고에서 구슬땀을 흘린 KBO리그 선수들. 27일 동성고 선수들과 같이 훈련하는 KIA 투수 윤중현(왼쪽부터) 키움 이명기, KIA 한준수, LG 이성우, 삼성 이태훈. 오른쪽 사진은 28일 실내 연습장에서 캐치볼을 하는 롯데 김원중.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김기훈·롯데 김원중 등 국내 프로리그 선수들 모교서 구슬땀 LG 이성우 등 비동성고 출신도 훈련...스카우트들도 인재 찾아 발길

광주 동성고가 야구계 '핫플레이스'로 뜨거운 1월을 보냈다. 2월 1일부터 KBO리그 각 구단의 스프링캠프 일정이 시작된다. 다양한 방식으로 캠프를 준비해온 선수들, 모교를 워밍업 무대로 삼은 이들도 많았다. 동성고에도 많은 선수가 발걸음을 했다. 김기훈, 한준수 등 KIA 선수는 물론 롯데 김원중, 한화 강경학·문동욱, 삼성 이성규·이태훈, 키움 이명기 등이 모교에서 새 시즌을 위한 구슬땀

을 흘렸다. 지난해 고양 위너스에서 주장을 맡아 활약한 내야수 전세민도 모교에서 새 시즌을 준비했다. 김원중 등이 28일 훈련을 끝으로 부산으로 이동한 가운데 이명기는 가장 늦게까지 모교를 지킨 뒤 키움 캠프에 참가할 예정이다. 이명기는 "스윙할 때 짧게 팔에 붙어 나와서 최대한 단거리로 칠 수 있도록, 정확히 맞는 연습을 했다"며 "올 시즌에는 1군에 올라가는 게 목표다"고 각오를 밝혔다.

비동성고 출신 선수들도 뜨거운 훈련 현장에 함께했다. LG의 22년 차 포수 이성우는 동성고에서 '마지막 시즌'을 위한 준비를 했다. KIA에서 활약하기도 했던 이성우는 이직 후에도 광주에 적을 두고 있다. 아내와 아이들이 광주에서 살고 있어 비시즌은 광주에서 보낸다. 이성우는 "감독님과 코치님이 배려해주셔서 몇 년 전부터 동성고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며 "이제 마지막이니 '마지막 불꽃'을 태운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다"고 각오를 밝혔다. '다이얼' 광주일고 출신 선수들도 동성고에서 목격됐다. 동성중을 졸업한 NC 박시원, KIA의 '예비역'

윤중현, 송진우 감독의 독립야구단에서 도전에 나서는 류승범 등도 동성고를 찾아 훈련했다. '익숙한 곳'이라서, '친한 친구들이 있어서'가 그 이유다. 진흥호 출신인 한화 오동욱도 팀 선배 문동욱과 함께 동성고를 훈련장으로 삼았다. 많은 KBO리그 선수들이 발길을 하자 김동휘 동성고 코치는 "팀을 구성해서 연습경기를 할 수 있을 정도였다. 선발에 마무리, 포수, 야수진도 다 구성된다"고 웃었다. "조심"을 잊지 않기 위해 매년 모교를 찾아 훈련하고 있다"는 김원중의 이야기처럼 프로 선수들은 후배들 앞에서 모범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면서 '좋은 교본'이 됐다. 김기훈은 직접 경기장 정리를 담당하고, 후배

들을 위해 햄버거 파티도 준비했다. 스카우트들에게도 동성고는 '핫플레이스'다. KIA 우선 지명 후보로 꼽히는 내야수 김도영과 투수 신원민 등 인재들이 많은 만큼 동성고 선수들을 살펴보기 위해 스카우트들도 부지런히 동성고를 찾았다. 김재덕 동성고 감독은 "대학 선수들까지 많은 선수가 동성고를 찾아왔다. 우리 선수들이 선배들과 이야기도 하고 소통도 하면서 훈련을 했다. 선배들이 후배들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대해 주고, 코치 역할을 해주기도 했다"며 "알아서 잘 하니 서로 배려하면서 훈련을 했다. 잘 준비한 만큼 좋은 성과를 얻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다음주 스프링캠프 돌입

코로나 영향 30년만에 국내 훈련...55명 참가 3월에 5차례 연습게임

KIA타이거즈가 내달 1일부터 3월 19일까지 광주·함평에서 2021시즌을 위한 담금질을 한다. 이번 스프링캠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 1991년 제주도 캠프 이후 첫 국내 훈련으로 진행된다. 윌리엄스 감독을 비롯한 코칭스태프 18명, 선수단 37명 등 55명은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스프링캠프를 치른다. 선수단은 투수 17명, 포수 3명, 내야수 9명, 외야수 8명 등 37명으로 구성됐다. 투수 이의리와 박건우, 장민기, 이승재 등 프로 데뷔를 준비하는 '루키'들도 캠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체력 및 기술 훈련, 전술 훈련에 집중하는 선수단은 3월 9일 대전에서 열리는 한화와의 경기를 통해 실전 점검에도 나선다. 10일에도 대전에서 한화와 만나는 KIA는 13·14일(한화-광주), 18일(KT-수원)까지 모두 5차례 연습 경기를 갖는다.

퓨처스 선수단은 함평 챔피언스필드에서 캠프를 소화한다. 이범호 총괄코치가 지휘하는 합평 캠프단은 코칭스태프 18명, 투수 20명, 포수 5명, 내야수 10명, 외야수 4명 등 57명으로 구성됐다. 한편 KIA는 국내 캠프에 맞춰 챔피언스필드와 챔피언스필드에 방한 및 방풍시설을 마련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끝냈다. <KIA 스프링캠프 명단> ▲감독=윌리엄스 ▲코치=위더마이어·정명원·곽정철·송지만·최희섭·김민우·이현관·김중국·진갑열 ▲투수=브룩스·맹명·고영창·김양수·김유신·김재열·박준표·이민우·이준영·임기영·전상현·정해영·홍상삼·이의리·박건우·장민기·이승재 ▲포수=김민식·배용환·한승택 ▲내야수=김선빈·터커·김규성·김태진·나주환·류지혁·박찬호·최정민·황대인 ▲외야수=나지안·최형우·김호령·오선우·이우성·이진영·이창진·최원준 /김여울 기자 wool@

웨스트햄, 황희찬 영입 결정 임박

1월 이적시장 곧 종료...영 스포츠 매체 2곳 "영입 가능성 크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웨스트햄의 데이비드 모이스 감독이 '황소' 황희찬(25·라이프치히)의 영입을 놓고 조만간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영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영국 스카이스포츠는 28일(한국시간) "웨스트햄이 황희찬의 영입 협상을 벌이고 있다"라며 "모이스 감독이 조만간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황희찬의 웨스트햄 '러브콜'은 최근 독일 언론이 "웨스트햄의 모이스 감독이 아약스(네덜란드)로 이적한 세바스티안 할러를 대체할 새로운 스트라이

커 자원으로 황희찬을 1월에 임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퍼지기 시작했다. 웨스트햄은 겨울 이적 시장에서 스트라이커 할러를 아약스로 2200만 파운드(332억원)에 이적시킨 가운데 미카일 안토니오의 백업 공격수 자원을 찾고 있다. 스포츠 매체인 '팬사이드'도 황희찬의 웨스트햄 임대설을 전하면서 "1월 이적시장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웨스트햄이 새로운 스트라이커 영입에 사활을 걸고 있다"라며 "라이프치히의 황희찬이 후보로 급부상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이강인 "안풀린다 안풀려" 이강인이 28일 스페인 세비야의 라몬 산체스 피스후안에서 열린 코파 델 레이(스페인 국왕컵) 세비야전에서 패배하자 고개를 떨구고 있다. /연합뉴스

이강인, 빛바랜 폴타임

발렌시아, 스페인 국왕컵 세비야에 0-3 패 16강 탈락

이강인(발렌시아)이 올 시즌 처음 폴타임으로 뛰었지만 소속팀은 세비야에 완패하며 스페인 국왕컵(코파 델 레이) 16강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발렌시아는 28일(한국시간) 스페인 세비야의 라몬 산체스 피스후안에서 열린 세비야와 2020-2021 국왕컵 16강전에서 0-3으로 패해 8강 진출에 실패했다. 이강인은 4-2-3-1 전술의 공격형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해 90분 폴타임을 소화했지만 공격포인트 달성에 실패하며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다. 이강인이 폴타임으로 뛴 건 이번 시즌 처음이다. 2020-2021시즌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무대에서 4위로 선전하고 있는 '전통의 강호' 세비야의 공격은 강했다. 세비야는 전반 20분 만에 왼쪽 코너킥 상황에서 루크 더용의 헤딩 결승골이 터지면서 앞서 나갔다. 더용은 전반 33분 수소가 골지역 오른쪽 구석에서 내준 패스를 쇄도하며 오른쪽발로 차 넣어 멀티골을 완성했다. 세비야는 전반 38분 이반 라키티치가 페널티아크 오른쪽 밑에서 오른쪽발로 골키퍼의 키를 살짝 넘기는 재치 있는 로빙슛으로 썩기골을 뽑아내며 사실상 일찌감치 승부를 결정했다. 이강인은 후반 39분 페널티지역 왼쪽 모서리에서 알렉스 블랑코가 헤딩으로 내준 패스를 가슴으로 트래핑한 뒤 곧바로 강력한 왼발슛을 시도했지만 골키퍼 정면으로 향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 4차례 유효슈팅에 그친 발렌시아는 볼 점유율에서도 39%-61%로 크게 밀리면서 영패를 면치 못하고 16강 탈락의 아쉬움을 맛봤다. /연합뉴스